

韓國貿易의 發展(1946—1959)

林 鍾 哲

<目 次>	
I. 一般的 特徵	6. 눈에 보이지 않는 貿易
II. 貿易額의 變化	III. 貿易構造의 變化
1. 輸 出	1. 輸出商品構造의 變化
2. 輸 入	2. 輸入商品構造의 變化
3. 輸出入依存度	3. 國別, 地域別 貿易構造
4. 外國援助	4. 援助輸入의 分析
5. 貿易收支	IV. 結 言

I. 一般的 特徵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무역은 比較優位를 근거로 하여 그 輸出供給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편 그 輸入需要는 所得의 크기와 價格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따라서 무역이 正常的으로 즉 합리적인 經濟的 計算 위에서 이루어질 때는 「틴베르헨」이 말했듯이 그것은 貿易兩當事國의 国民소득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地理的 距離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진다⁽¹⁾. 사실 지리적 거리가 클수록 커지는 輸送費는 貿易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인 兩國間의 최초의 生產費差(initial disparity of cost)를 감식 하므로 이는 「틴베르헨」의 實證的研究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理論上 당연히 導出될 수 있는 推論이다. 그러나 해방이후의 한국무역의 변화, 발전을 더듬어 볼때 그것은 「틴베르헨」流의 標準型과는 커다란 乖離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후의 한국무역은 「친들버거」가 1958년의 나이제리아와 프랑스領 西아프리카 두 나라의 貿易類型에서 지적한 「國旗에 따르는 貿易」 즉 경제적 계산을 기초로 하여서가 아니라 政治的 來往의 頻度를 바탕으로 하여 움직이는 무역⁽²⁾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1) Jan. Tinbergen, *Shaping the World Economy*, 1962, p.65.

(2) C.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National Economy*, 1962, 申榮福譯「外國貿易과 國民經濟」p. 14.

이것은 그러나 해방이후에 나타난 특징은 결코 아니다. 1876년에 강제된 開港이후 시작된 무역과 특히 1910~1945년간의 植民地貿易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여러 千年에 걸쳐 있었던 朝貢貿易을 규제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貿易利益(gains from trade)의 취득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가진 自律的 行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제된, 정치목적을 위한 他律的 行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강제된 정치목적을 위한 무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역이익이 어느 때나 全無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高麗時代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당히 오랫동안 기본적인 무역조건 즉 交換比率(=價格), 交易數量 및 交易對象(=輸出入商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멀리 사우디 아라비아(=大食國)의 商人까지도 상대로 성대한 客館貿易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다⁽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와 같은 價格「메카니즘」이 아니라 政治「메카니즘」에 의하여 규제된 무역은 두가지면에서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첫째는 交易條件의 惡化를 통한 國富의 流出이고 다른 하면에서는 국민경제의 自己完了의 有機的 成長을 위한 要求와는 전혀 다른 第3國의 國민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동기에서 강요된 輸出入貿易構造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경제의 有機的 關聯과 成長이 파괴 또는 阻止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貧困화와 依存화의 경험은 明나라의 過重한 金輸出要求를 감당하다 못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金이 나지 않는다는 구실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鑛業을 포기한 李朝初의 역사⁽⁵⁾나 일본에서의 農業停滯가 그 工業化에 미치는 阻止的 效果를 없애기 위하여 강제된 한국의 對日米穀輸出要求가 產米增殖計劃 등을 통하여 한국경제를 米作中心의 單一栽培經濟(monoculture)로 轉落시켰고 또 工業化初期段階의 粗雜한 製品을 안심하고 팔 수 있는 商品市場으로서 강제하는 가운데 工業化가 阻害되고 跛行的 經濟構造를 갖게 된 日帝時代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⁶⁾.

이러한 基本的인 특징이 해방이후의 한국무역에서도 뚜렷이 찾아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援助依存의 對美偏重貿易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46~1959년에 있어 한국무역은 첫째로는 地理的 遠近이나 國民所得의 크기 보다는 政治的 親疎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었으며 둘째로는 輸入需要의 대부분이 無償의 美國援助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3) 韓國現代史 第7卷『新生活百年』(新丘文化社刊)중의 拙稿『貿易』을 볼 것

(4)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 pp. 7~14 및 前揭 拙稿.

(5) 朝鮮貿易協會, 前揭書. P. 18

(6) 日帝時代에 日本資本主義의一方의 要求에 의하여 韓國經濟가 歪曲, 畸型化해 간데 대해서는拙稿“不平等深化過程의 展開로서의 韓國의 工業化, 1910~1960” 經濟論集第3卷 第1號 및 第3號를 볼 것, 또 旗田 魏 朝鮮史, pp. 177~178, 211~219 참조.

음으로 인해서 對外支拂手段의 확보에서 加速化되어야 할 輸出增大→輸出產業의 건설→수출을 통한 成長이라는 古典的인 成長「메카니즘」이 發動하지 않았으며 세째 輸出能力은 커지지 않고 輸入需要는一方的으로 총족되는 가운데 國際經濟의 接觸을 확대할 動因을 상실하여 國제經濟사회에서의 孤立과 特定國에의 偏重依存을 결�했으며 네째 長久한 세월에 걸쳐 片務的으로 제공되는 援助輸入을 하는 가운데 經濟構造는 歪曲되고 결국에는 依存經濟(dependent economy)를 결코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그후에 있어서의 自主的, 自立的經濟建設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化石化하였다. 以下에서 우리는 이러한 過程의 진행을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시켜 가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貿易額의 變化

1. 輸 出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생산요소의 量的인 증대와 또 質的으로는 生產性 상승을 통하여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1945~1959년간에 2,690,354 천 달러나 투입된 외국원조에 힘입어 틀림없이 그 활동의 규모를 확대하여 왔을 것임에도 불

<第1表>

輸出入貿易總括

(단위 : 千弗)

	輸 出		輸 入		政 府			
	金額	前年比	金額	前年比	援 助	輸入金額에 대한比重	金額	輸入金額에 대한比重
1946	3,541		60,721		49,496	81.5	49,496	81.5
47	26,804	656.96	232,615	283.09	199,899	85.9	190,853	82.0
48	22,260	-17.0	208,003	10.6	175,592	84.4	188,320	90.5
49	13,804	-38	132,775	-63.8	116,399	87.7	—	—
50	29,444	113.3	47,741	-36.0	44,845	93.9	—	—
51	15,569	-47.1	155,337	225.4	129,221	83.2	6,019	3.9
52	27,733	78.1	214,953	38.4	161,323	75.1	24,537	11.4
53	39,585	42.7	345,436	60.7	191,806	55.5	68,000	19.7
54	24,246	-38.7	243,327	-29.6	149,401	61.4	—	—
55	17,966	-25.9	341,416	40.3	242,787	71.1	185,319	54.3
56	24,595	36.9	386,063	13.1	319,897	82.9	209,851	54.5
57	22,202	-9.7	442,174	14.5	374,026	84.6	230,702	52.3
58	16,451	-25.9	378,165	-14.5	310,976	82.2	161,954	42.8
59	19,162	16.5	291,709	22.9	210,742	72.2	49,643	17.0

註 : 1949~1951年은 民間貿易+外國원조의 合計

資料 : 1946~1951 產銀 產業經濟 10年史。

그 이후는 韓銀 經濟年鑑 1957 및 經濟統計年報 各年號

구하고 무역 특히 輸出貿易은 그에 대응하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第1表에서도 보듯 해방직후의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政治的인 對外關係의 一時的 斷絕 등으로 1946년에 3,541천 달러로 줄어들었던 수출이 1947년에 26,804천 달러로 커진 후로는 그해마다의 變動은 한결같지 못했으며 1947~1959년간을 통하여 볼 때도 1959년의 수출액은 19,162천 달러로서 1947년 수준에 비하여 7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최고의 수출실적을 올렸던 1953년의 39,585 천 달러에 비하면 2분의 1 水準이 채 못되었다. 그리고 1956~1959년의 14년간을 통한 輸出의 평균액도 21,668 천 달러로 40年代 末期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46~47년의 급격한 수출증가를 예외적인 것으로 하더라도 1947년 이후에 있어서의 해마다의 輸出變動은 비단 그 振幅만이 커울 뿐 아니라 그 回數도 매우 빈번하였다. 즉 그 기간중 7회에 걸친 輸出減少가 있었던 바 이는 수출이 해마다 增減을 되풀이 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그 振幅도 1950년의 對前年 113.3%增加에서 1951년의 對前年 47.1%減少에 이르기까지 격심한 變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46~1959년간을 통하여 輸出에 어떠한 趨勢 trend를 발견할 수가 없다. 즉 第1圖와 第2表에서는 볼 수 있듯이 輸出額의 原系列를 가지고서는 물론이고 해마다의 變動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하여 3個年 移動平均 혹은 5개년 移動平均을 한 修正系列에 의할 때일지라도 輸出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자취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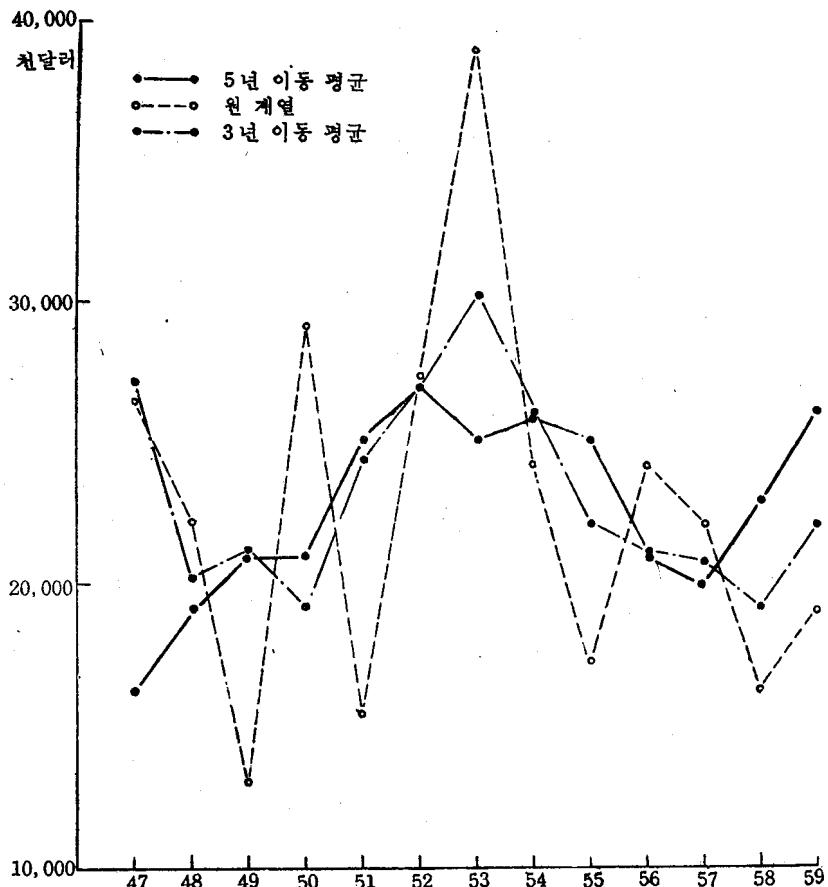
<第2表>

輸 出 貿 易 的 趨 勢

(1947~59)

	원 계 열	3년 이 동 평균	5년 이 동 평균
1947	26,804	17,535	16,602
48	22,260	20,956	19,171
49	13,804	21,836	21,576
50	29,444	19,606	21,762
51	15,569	24,249	25,227
52	27,733	27,629	27,315
53	39,585	30,521	25,020
54	24,246	27,266	26,825
55	17,966	22,269	25,719
56	24,595	21,588	21,092
57	22,202	21,083	20,075
58	16,451	19,272	23,047
59	19,162	22,813	26,304

자료 : 第1表에서 作成



<第1圖> 輸出貿易의 趨勢(1947—59)

은 결국은 수출이 국민경제 활동과 一義的인 관련이 없이 孤立的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즉 수출이 開發途上國에서 의당 요구되는 成長의 엔진(engine of growth)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國民總生產에 대한 推計가 가능해진 1953년 이후에 있어서의 兩者の 相關關係를 구체적으로 計測해 본 第3表의 자료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즉 第3表에서도 보듯 수출은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만큼 적극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였으며 수출과 국민총생산사이의 相關은 0.5328이라는 지극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前節에서 말한 바와 같이 輸入需要가 無償援助에 의하여 대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에 投入 輸入(input import)을 支辨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이라는 당연한 國民經濟的 義務가 수출에 대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第3表>

輸出과 國民總生產의 相關關係

	국민총생산 Y	수출 X	
1953	100.00	100.00	
1954	106.03	61.25	$Y=146.8750 - 0.4933X$
1955	112.47	45.39	$R^2=0.5328$
1956	113.87	62.13	
1957	123.89	56.09	
1958	130.75	41.56	
1959	136.48	48.41	

자료 : 한은, 국민소득연보, 1969年版 및 경제통계연보 各年號付作成.

輸入과 國民總生產과의 相關關係

	국민총생산 Y	수입 X	
1953	100.00	85.22	
54	106.03	89.76	1953~57
55	112.47	93.68	$Y=54.6374 + 0.5685X$
56	113.87	112.86	$R^2=0.8002$
57	123.89	116.41	
58	130.75	107.31	
59	136.48	97.79	

생각된다⁽⁷⁾.

2. 輸入

第1表에서도 보듯이 1946~59년간의 한국무역은 輸入, 그것도 援助에 의한 輸入을 主軸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의 輸出入比率은 수출이 연평균 21,668 천달러였음에 반하여 수입은 248,603 천달러로서 대체로 수입이 무역총액의 91.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수출입의 逆調가 대체로 1대 11.5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대한 수입은 그 대부분이 무상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며 따라서 1947~59년간에 있어 輸入이 그리는 曲線은 援助政策의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즉 해방직후의 救恤援助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가 政府樹立으로 인한 美軍政의 종결, 그리고 「델레스」의 유명한 美防衛圈에의 韓國不包含宣言 등에서 볼 수 있는 韓國에 대한 美國의 상대적인 政治的 hand off 時期라고 할 수 있는 1950년을 전후하여 원조가 크게 줄어 들었다.

(7) 開發途上國의 輸出入貿易이 갖는 特殊한 意義에 대해서는 S.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6. Ch. II 및 UN,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4. Pt. I 특히 Ch. I 을 볼 것.

가 休戰이후 戰爭被害로부터의 救恤 및 復興援助가 시작되면서 다시 원조규모가 커져 1957년의 374,026 천달러로 피크를 이룬 후 1958년 이후는 미국의 國際收支赤字로 말미암아 다시 급격히遞減하고 하는 움직임에 한국의 수입무역은 정확히 일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수입의 援助依存度는 1946년의 81.5%에서遞增하여 1953년의 93.9%로 피크를 이루다가 1953년에는 55.5%로 가장 낮아지고 그후 다시 커지기 시작하여 1957년에는 84.6%로까지 커졌으나 그 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1959년에는 72.2%까지 떨어졌고 드디어 1969년에는 14.9%로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1946~1959년간의 전체로서의 輸入의 援助依存度는 78.6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기간중의 輸入依存度는 1947~49년간은 16.0%이고 1950~59년간은 다소 줄어 15.7%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간 전체를 통하여 외국원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53~57년간에 있어서의 수입의존도는 20.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민총생산의 5분의 1 내지는 6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單一의 最大要因(但米作을 제외할 때)으로 작용하게 된 輸入이 그 78.69%가 無償의 援助로 이루어졌고 이 援助의 규모와 내용이 우리의 主體的인 要求, 國民經濟的인 必要에 의해서가 아니라 援助國의 對外政策 및 國內經濟事情에 의하여一方的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經濟構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項을 달리하여 고찰은 하겠지만 한국경제는 援助가 대부분인 수입무역을 主軸으로 한 對外經濟關係를 15년동안하여 오는 가운데 완전히 依存經濟的인 體質과 構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第3表에서도 보듯 輸入과 國民總生產과의 相關은 奇異하게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해마다의 变動을 調整하기 위하여 3個年移動平均에 의한 輸入額指數를 國民總生產指數에 관련시켜 볼 때 1953~59년간의 相關係數 R^2 는 0.3011에 불과하며 원조가 줄어들고 따라서 수입도 감소하여 國民總生產에 대한 輸入의 乘數效果가 작아졌을 1958~59년을 제외한 1953~57년간을 보더라도 相關係數는 0.8002에 불과하고 輸入의 1단위 증가는 국민총생산의 0.57 단위 증가를 가져오는데 불과하다. 이것은 지극히 失望的인, 期待外로 낮은 值이나 결국은 援助와 그에 기초한 輸入이 당년의 소비로 흘러擴大再生產의基礎가 못된 것의 한가지 證左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무역이 원조에 의해 규제되고 그 원조는 二國間베이스로 政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인만큼 政府貿易이 수입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히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있어서는 수입총액중 정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 (1948년)에 까지 달했으며 1946~48년간에는 평균 84.6%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보아 1945~1950년간의 무역은 政府貿易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官營貿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1~53년간에는 평균 10.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실지에 있어 정부무역의 비중이 하락한 때문이 아니라 戰爭, 기타의 원인으로 그 기간중의 資料가 利用不可能하거나 不備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무역은 1958년까지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비록 1946~48년 이후 꾸준히 줄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1957년까지는 수입총액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무역이 줄고 民間貿易이 무역의 主役을 차지한 것은 1959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처럼 무역의 92%가량, 국민총생산의 16%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輸入이 援助輸入 中心이어서 外國의 政治·經濟的 動機와 또 自國의 政治的 「메카니즘」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는 가운데서 한국무역은 合理的이며 正常的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었다. 6·25 動亂前의 마카오密貿易과 6·25 動亂 중 및 休戰후의 外援市場에서의 벼락부자誕生의 경우에도 보듯 한국무역은 科學的 計算을 土台로 한 經濟「메카니즘」위에서가 아니라 內外의 政治勢力과 결탁하여 政治的 「메카니즘」위에서 營爲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 期間은 長期的 正常的 經濟發展貿易發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合理的 計算, 合理的 經營의 훈련을 쌓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후의 무역발전과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에 중대한 制約을 주게 되었다⁽⁸⁾.

3. 輸出入依存度

수출의 停滯를 반영하여 이 기간중의 輸出依存度는 평균 1.18%에 불과하였다. 수출의 촌도의 대체적인 움직임은 1947년부터 195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曲線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해방직후부터 1953년까지는 해방후의 혼란과 6·25로 인한 파괴등으로 국민경제적인 생산활동은 다소 停滯되거나 縮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949년과 1951년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서 다소 커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1953년에는 39,585 천달러라는 예외적인 수출증대를 실현한 때문이다. 한편 1953년 이후에 수입의 촌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休戰이후의 復舊, 建設로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커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모는 踏步狀態에 있었거나 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수출의 촌도가 이

(8) 60年代에 들어와서 50年代에 致富한 大貿易商들이 계속 倒產하는 것이나 60年代의 무역이 正常的 發展을 못하는 것은 50年代에 있어서 化石化된 不合理的 後遺症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럼 낮을 뿐더러 傾向的으로는 過減조차 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수출이 국민총생산의 증대에 적극적인 기여를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같은 기간중에 일본은 生產은 연평균 14.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7.0%씩 증가하여 그토록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輸出依存度를 1950년의 8.9%에서 1958년의 12.5%로까지 끌어 올려 成長의 「엔진」으로서 機能한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⁹⁾.

한편 輸入依存度는 외국원조가 격감되었던 1950~51년가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戰後 復舊建設이 진행된 1953~57년간에는 특히 높았다가 1958

<第4表> 貿易依存度의推移(1947~59)

	G N P 百萬圓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	무역의존도 %
1947	4,545	0.24	16.92	17.16
1948	6,641	1.08	17.56	18.46
1949	8,800	1.28	13.59	14.87
1950	22,834	1.43	4.85	6.28
1951	55,430	0.83	7.00	7.83
1952	121,962	1.60	13.63	15.23
1953	1,539 百萬弗	2.57	22.44	25.01
1954	1,639	1.47	15.15	16.92
1955	1,735	1.04	19.68	20.72
1956	1,815	1.36	21.27	22.63
1957	2,035	1.09	21.73	22.82
1958	2,174	0.76	17.39	18.15
1959	2,216	0.89	13.71	14.60
평균		1.20	15.76	16.96

자료 : 1947~1952, 產銀, 產業經濟10年史 p. 529. 1953 이후는 韓銀 國民所得年報, 1969年版 및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서 作成

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58년 이후에 수입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은 1957년을 고비로 원조가 줄어 들므로써 수입의 절대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미미하게 나마 국민 총생산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4. 外國援助

1945년에서 시작하여 1959년에 이르는 15년 동안에 총액 2,690,354 천달러의 외국 원조가 제공되었다. 이것은 연평균 179,357 천달러가 되는 것이며 국민 1人當으로 볼 때라도 연평균 9.11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⁰⁾. 戰後 유럽의 奇蹟的 復興을 가져 오는데 지

(9) 赤松 要기 타監修, 講座 國際經濟 第2卷 「國際收支」 p. 183.

(10) 人口는 다음과 같은 資料를 이용했다.

1946~49, 한은 경제통계연보

렛대역 할을 했던 마샬計劃에 의한 對西歐經濟援助가 3년간에 연평균 1人當 12달러 였었다⁽¹¹⁾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마어마한 것이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처럼 공여된 원조에 의하여 이룩된 輸入은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59년간에 총액 2,676,410 천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1人當 年平均 9.06달러의 輸入이 되는 셈이다.

원조에 의한 輸入은 대체로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第1段階은 1946~49년간의 救恤의 목적을 위한 원조기간으로서 이 기간중의 원조수입은 총 541,386 천달러, 연평균 135,347 천달러이며 국민 1人當 연평균 6.81 달러의 규모가 된다. 第2段階은 1950~53년의 戰爭 목적을 위한 전조기간 및 1954년의 그뒤 치 닥거리리를 위한 원조기간으로서 이 5년간을 통하여 총 676,596 천달러의 원조수입이 있었다. 이것은 1人當 年平均 6.61 달러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第3段階은 經濟的 自立을 위한다는 復舊建設의 經濟援助관계로서 1955~58년의 4개년이 이단계에 든다. 이단계에 있어 가장 集中的인 원조가 이루어졌으니 원조수입 총액은 1,247,686 천달러, 연평균 311,922 천달러에 달하였으니 연평균 1人當의 원조수입액은 13.94 달러로서 마샬원조계획 기간중에 西歐에 투입된 미국원조보다 1.94 달러가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같은 막대한 원조수입 및 원조에 의한 국내산업건설로 인한 공급증대로 1958년에는 1945년이래 단 한번 物價가 그 전해보다 떨어진다는例外를 만들었다. 끝으로 第4 단계는 終結로 치닫기 위한 원조감소의 기간으로서 1959년은 60年代로 이어질 그간의 첫해가 되는 것이다. 이해에 있어 원조수입은 1955년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2억달러 台로 줄어든 210,742 천달러이었다.

5. 貿易收支

수출입의 逆調가 1대 11.5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貿易計定에 있어서의 赤字가 크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다른 要因의 作用이 없는 한 對外債務가 累積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外換收支를 위하여서는 다행히도 수입의 대부분이 무상의 원조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었으므로 對外債務는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第5表에서 알아 볼 수 있다. 1946년이후 1959년까지 수입 총액에서 수출 총액을 뺀 크기인 貿易赤字는 3,177,073 천달러에 달하였다. 그런데 그중 2,676,410 천달러가 원조에 의한 수입으로 빼꾸어질 수 있었던 것이므로 對外支拂手段의 流出을 가져올 實質的인 赤字는 500,663 천달

1950~51, 人口統計의 缺如로 1949년과 1952년의 人口의 合計

1952년, 한은, 경제통계연보

1953년이후, 한은, 국민소득연보의 年史人口

(11) UN,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p. 89.

<第5表>

貿易赤字의推移

	赤字총액 (=총수입-수출)	指 數 1947=100	實質的赤字 (=赤字總額-援助輸入)	指 數 (1947=100)
1946	57,180	27.8	7,684	130.0
1947	205,811	100.0	5,912	100.0
1948	185,743	90.2	10,151	171.7
1949	118,971	57.8	2,572	43.5
1950	18,297	8.9	(+) 26,548	—
1951	139,768	67.9	10,547	178.4
1952	187,220	91.0	25,897	438.0
1953	305,851	148.6	114,045	1,929.0
1954	219,081	106.4	69,680	1,178.6
1955	323,450	157.2	80,663	1,364.4
1956	361,468	175.6	41,571	703.2
1957	419,972	204.1	45,946	777.2
1958	361,714	175.8	50,738	858.2
1959	272,547	132.4	61,805	1,045.4
총 계	3,177,073		500,663	
연평균	226,934		35,762	

資料：第1表에서 作成

터, 연평균 35,762 천달러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未成熟債務國의 단계에서는 흔히 黑字가 되는 貿易外收支計定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補填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6년을 예외적인 해로 보아 1947년을 기준할 때 赤字總額이나 實質的赤字나 모두가 꾸준히 커져가고 있는 것이 特徵의이다. 즉 해마다의 변동은 몹시 심하지만 무역적자 총액은 1947년의 205,811 천달러에서 1959년의 272,547 천달러로 32.4% 가량 커졌으며 實質的인 赤字는 1947년의 5,912 천달러에서 1959년의 61,805 천달러로 10배 이상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무상의 원조수입을 통하여 자국, 개발된 輸入需要가 원조의 감소에 비례하여 축소하지 못하는 下方硬直性을 결과 했기 때문에 自力에 의한 輸入의 比가 커지지 않을 수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946~59년 중을 통하여 충분한 규모의 輸出產業育成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對外支拂手段에 압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6. 눈에 보이지 않는 貿易

未成熟債務國의 단계에 있어서는 基礎的 生產施設의 不備로 商品輸出은 크지 못하고 그 대신 새로이 시작된 國際經濟的 接觸으로 새로운 需要가 발전되어 商品計定에서는 赤字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 赤字의 일부분은 주로 觀光 移民送金 등으로 이루어지는 貿易外收入에 의하여 補填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을 資本計定에서의 黑字 즉 長短期의 外債에 의하여 메꾸어 나가게 마련이다⁽¹²⁾. 1945년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경제도 이러한一般的類型

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대하게 累積되는 貿易赤字를 대부분 원조에 의하여 메꾸고 그러고도 남은 赤字가 貿易外計定上의 黑字에 의하여 카바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觀光產業도 開發되지 않고 충분한 규모의 移民도 없었던 우리나라의 貿易外收入은 標準的인 未成熟債務國처럼 觀光收入, 移民送金 등으로 구성될 수 없었다. 그대신 우리

<第6表>

貿易外收支

(단위 : 千弗)

	收入	그 중 政府去來比重	支拂	그 중 運輸의比重	收拂差
1952	72,108	86.0	5,847	21.4	66,261
1953	133,713	83.8	13,998	14.3	119,715
1954	52,595	77.0	7,374	7.2	45,221
1955	66,420	82.5	10,091	0.1	56,329
1956	37,027	54.5	14,734	2.7	22,293
1957	55,319	74.5	11,836	9.7	43,483
1958	80,695	81.2	13,468	15.7	67,227
1959	78,254	82.0	18,041	20.7	60,213

자료 : 韓銀 經濟年鑑 및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나라는 6·25 動亂을 계기로 한 UN軍의 駐屯으로 인하여 UN軍의 直接買上弗, 用役을 포함한 軍納, 公益物使用料, 그리고 對充資金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政府去來에서의 收入이 第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貿易外收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대신 支拂면에 있어서는 표준적인 未成熟債務國과 마찬가지로 國際經濟活動을 위한 社會間接資本施設인 輸送, 保險 등의 不備로 運賃支拂이 가장 큰 項目을 이루고 있으나 海外旅行에 있어서도 오히려 支拂이 收入보다 크다는 變異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特異性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1952~59년간에 貿易外收支計定에서는 총액 480,742 천 달러의 黑字를 실현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中 원조에 의하여 카바할 수 없었던 貿易計定에 있어서의 赤字총액 490,345 천 달러와 거의 맞먹는 것이다.

III. 貿易構造의 變化

1. 輸出商品構造의 變화

1930年代부터 한국의 工業生產活動은 급격히 커졌으나 거의 모두가 侵略戰爭을 위한

(12) 國際經濟의 發展程度에 따른 段階區分과 各段階別의 國際收支上 特徵에 대해서는 C.P. Kindleberger, *International Economics*, 1958, pp. 417~420 을 볼 것.

<第7表>

1950年代의 主要輸出商品

단위 : { 1950~55 百萬圓
1956~59 千弗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鮮魚	—	—	—	—	85.42	4.38	187	4.69	97	1.45	175	—	512	2.08	742	3.34	707	4.30	602	3.14
乾魚	9.61	2.95	—	—	23.99	1.23	—	—	—	—	232	1.29	—	—	1,393	6.27	1,450	8.81	516	2.69
鹽藏	—	—	5.07	1.10	—	—	—	—	—	—	—	—	—	—	—	—	—	—	—	—
김	17.60	5.40	25.43	5.54	69.50	3.56	274	6.87	—	—	294	1.64	565	2.30	885	3.99	—	—	1,191	6.22
毛皮	—	—	4.65	1.01	69.38	3.50	92	2.31	—	—	—	—	—	—	—	—	—	—	—	—
副生	—	—	7.26	1.58	—	—	62	1.56	295	4.42	354	1.97	536	2.18	621	28.0	—	—	244	1.27
鱼絲	—	—	10.30	2.24	51.61	2.65	247	6.20	759	11.37	1,275	7.10	1,560	6.34	927	4.18	548	3.33	744	3.88
玉筋	3.68	1.13	17.44	3.80	—	—	46	1.15	—	—	206	1.15	425	1.73	—	—	—	—	—	—
马肉	—	—	—	—	—	—	—	—	—	—	272	1.51	281	1.14	235	1.06	254	1.54	389	2.03
石鉛	—	—	17.54	3.82	49.89	2.56	43	1.08	118	1.77	1,224	6.81	1,941	7.89	2,670	12.03	1,033	6.28	626	3.27
鐵鋼	—	—	—	—	—	—	—	—	—	248	1.38	—	—	—	—	—	314	1.91	428	2.23
鋼屑	—	—	—	—	—	—	—	—	—	—	—	—	—	—	2,193	9.88	2,225	13.53	2,178	11.37
石鉛	5.00	1.54	40.22	8.76	214.46	11.00	49	1.23	74	1.11	—	—	—	—	—	—	—	—	—	—
鐵石	—	—	—	—	—	—	—	—	—	—	—	—	—	—	519	2.34	408	2.48	—	—
鋼石	18.31	5.62	234.97	51.18	958.06	49.13	1,755	44.02	2,638	39.52	5,693	31.69	—	—	3,211	14.46	2,453	14.91	3,397	17.73
鐵人	—	—	12.22	2.66	45.90	2.35	118	2.96	176	2.64	667	3.71	756	3.07	—	373	2.27	630	3.29	—
煙草	—	—	—	—	—	—	—	—	—	—	249	1.39	640	2.60	851	3.83	206	1.25	72	—
無煙	—	—	—	—	—	—	101	2.53	—	—	488	2.72	—	—	—	297	1.81	657	3.43	—
細炭	10.47	3.21	6.45	1.40	42.14	2.16	194	4.87	378	5.66	—	—	725	2.95	570	2.57	584	3.55	717	3.74
天物	—	—	—	—	—	—	—	—	—	—	—	—	—	—	1,246	5.61	899	5.46	1,425	7.44
銅鋁	—	—	2.53	—	15.23	—	—	—	—	—	285	1.59	604	2.46	282	1.27	294	1.79	46	—
著錄	—	19.85	—	83.09	—	82.52	—	82.13	—	69.39	—	67.27	42.30	37.78	81.71	76.14	80.32	75.89	80.10	73.09
総計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은, 경제연감, 1957년판 및 경제통계연보, 1960년판에서 作成.

軍需生產을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北韓에 위치한 것이었다⁽¹³⁾. 그리고 南韓에 있었던 輕工業 중심의 工業生產施設도 해방직후는 原料, 電力, 技術의 不足과 社會的混亂으로 말미암아 國內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稼動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해방직후에는 특히 生必品 관계의 工產品은 수출을 규제하기까지 하였다. 그 때문에 수출상품은 대부분이 水產物과 鐵山物 그리고 農產物 등 1次產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7년 6월 5일에 過渡政府商務部에 의하여 개정된 輸出品許可範圍를 보면 寒天, 乾魚, 魚肝 등 수

<第8表>

商品別輸出變動(1·2次商品別)

단위 : { 1946—54 百萬圓
1955—59 千弗 }

	第一次產品			第二次產品			商品輸出總額	
	金額	成長率 (%)	構成比	金額	成長率 (%)	構成比	總額	構成比
1946	0.43		91.49	0.04		8.51	0.47	100
47	8.41	855.81	75.70	2.70	6,650.00	24.30	84.11	100
48	57.83	587.63	80.39	14.11	422.59	19.61	71.94	100
49	102.05	76.47	90.56	10.64	△24.59	9.44	112.69	100
50	306.59	200.43	94.12	19.14	79.89	5.88	325.73	100
51	442.73	44.40	96.43	16.40	△14.32	3.57	459.13	100
52	1,817.95	310.62	93.51	126.19	669.45	6.49	1,944.14	100
53	3,551.14	95.34	89.59	412.84	227.16	10.41	3,963.98	100
54	5,946.00	67.44	89.13	725.00	75.61	10.87	6,671.00	100
55	16,289.	173.95	90.67	1,677.	131.31	9.33	17,966.	100
56	22,114.	35.76	89.91	2,481.	47.94	10.09	24,595.	100
57	18,000.	△18.60	81.07	4,202.	69.37	18.93	22,202.	100
58	13,498.	△25.01	82.05	2,953.	△29.72	17.95	16,451.	100
59	16,771.	24.25	87.52	2,391.	△19.03	12.48	19,162.	100

註 : 第一次產品 : SITC, 0~4. 第二次產品 : SITC 5~9

자료 : 한은 경제연감 및 경제통계연보

산물과 사과, 배 등 果實類, 모리브텐, 黑鉛, 螢石 등 광산물과 漆器, 刺繡 등 手藝品, 그리고 生絲, 毛皮, 人蔘 등 特產品에 국한되어 있었다⁽¹⁴⁾.

1950年代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수출진흥 정책이 강구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工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 수출산업을 조직적으로 육성, 진흥한다는 것이 아니라 既存의 特產品中心的 輸出產業에 대하여 行政的 또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의 면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50年代를 통하여서 새로운 輸出商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第7表에서도 보듯 編織物, 電氣銅 등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輸出商品중 오직 編

(13) 1940년 현재 重化學工業生產의 79%와 輕工業生產額의 26%, 전체 工業生產額의 53%가 北韓에 있었다.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I-101.

(14) 產銀 產業經濟 10年史, p. 509.

織物 하나가 特產品이 아닌 工業品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¹⁵⁾.

한편 해방후 15년에 걸친 수출진홍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상품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1950년대를 통하여 수출총액의 1%이상을 차지하는 15개미만의 상품으로 수출의 대부분분이 카바되어 왔다. 즉 가장 심하게는 1951년에 있어 重石, 鐵鋼屑, 김 등 불과 11개의 상품수출이 수출총액의 83.09%를 차지하였으며 品目別로 분산이 커던 1950년에 있어서도 重石, 김, 寒天 등 6개 품목이 수출총액의 19.85%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를 통하여 이들 10개 内外의 주요품목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27%에 달하고 있다.

다음 해방후의 수출상품구조를 原始生産物과 工業製品 즉 1次產品과 2次產品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第8表에서 보듯 第1次產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1950년대를 통하여 工業建設이 진행됨에 따라 第2次產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커져가고 있다.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第2次產品이 차지하는 크기는 평균 11.99%에 불과하며 1946년에 8.51%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의 고루지 못한 변동끝에 1959년에는 12.48%로 3.97포인트 커졌다. 그런데 1950年代初에는 韓國動亂이나 印度支那戰爭의 영향도 있고 하여 가령 重石의 경우에도 보듯이 第1次產品의 國際需要가 매우 彈力的이었고 그 交易條件도 크게 改善되었었다. 그러나 後半이후에 가서는 그 需要와 價格이 크게 停滯하였으므로 第1次產品 中心의 수출상품구조를 가진 한국의 수출은 크게 伸張될 수 있는 市場環境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財貨의 最終 用途別로 수출상품 구조를 볼때 第9表에 있어서와 같이 原資材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消費財이며 資本財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54년 이후 약간 나타났을 뿐이다. 이것은 鎳山物과 水產物 그리고 手工業的 特產物이 수출의 大宗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구조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원자재의 비중은 1947년의 63.9%에서 1956년의 92.6%까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1959년에는 77.2%로 1947년에 비하여 13.3포인트 커졌고 그 대신 소비재수출비중이 36.0%에서 22.5%로 13.5포인트 하락하였다. 全期間에 걸쳐 볼때 소비재 수출의 비중은 28.95%이고 원자재 수출의 비중은 70.79%였다. 결국 한국무역은 日帝植民地下에서와 마찬가지인 原資材輸出, 消費財輸入의 構造를 뜻 벗어났던 것이다⁽¹⁶⁾.

(15) 特產品과 工產品의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는 資料마다 相異를 나타내고 第8表에 의할 때는 1946년의 91.5% 對 8.5%에서 1959년의 87.5% 對 12.5%로 커가고 있으나 엄격하게 工產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즉 再生品이나 分類가 애매한 것을 제외할 때는 紡織物하나뿐이었다고 하여야 한다.

(16) 日帝下의 輸出入商品構造의 推移는 다음과 같다.

<第9表>

輸出商品構造

단위 : %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47	36.0	—	63.9
48	64.8	—	35.2
49	68.8	—	31.3
50	82.2	—	18.4
51	8.7	—	91.3
52	12.7	—	87.5
53	15.8	—	83.6
54	12.4	0.3	87.2
55	8.5	1.2	90.1
56	6.4	0.7	92.6
57	19.1	0.2	80.2
58	15.8	—	81.8
59	22.5	0.3	77.2
평균	28.95	0.26	70.79

자료 : 한은, 경제연감, 1957년판

경제통계연보, 1960년판에서作成

2. 輸入商品構造의 변화

1950년대까지의 한국경제는 외국원조에 의하여 그基本的活動이 제약되어 있었고 따라서 한국무역에 있어서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무역 및 국민경제활동을 규제하는戰略的要因으로 기능하였다. 이것은開發途上國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의 경우는 경제의 순환 및 발전을 위하여戰略的機能을 하는 수입이援助授援國의 態意와 利害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수입상품의 구조는 輸出商品構造에 있어서와는 달리 국민경제의 변화에 좀 더彈力의으로對應하는 것 같아 보인다. 물론消費財 중심이며 第2次產品 중심의 依存的輸入構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不變이나個個의 重要輸入品目에 관해 볼 때 50년대의 경제적 변화를先導 또는反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즉 1950년대 초에 있어서의輸入은戰爭遂行과戰災救恤에對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특징을 가졌다. 그때문에 1950

	1921	1931	1935
輸出原料기타	97.3%	92.6%	94.9%
工 品 製	2.7%	7.4%	5.1%
輸入原料기타	24.4%	36.5%	38.4%
工 製 品	75.6%	63.5%	61.6%

資料 :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p. 286.

(17) 援助國의 立場分析은 I.M.D. Little & J.M. Clifford, International Aid, 1965, Pt. III.를 參照.

<第10表>

1950年代의 主 要 输入 商 品(1950~1959)

단위 : { 1950~1954
1955~1959 百萬圓
千另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밀 쌀	—	—	—	—	1,110	15.76	3,046	13.62	1,077	3.88	4,188	1.23	12,367	3.20	27,328	6.18	26,362	6.97	14,494	4.87
리 당	—	—	—	—	1,218	17.29	3,186	14.24	173	0.62	14	—	30	0.01	34,722	7.85	527	0.14	—	—
원 솔	0.1	0.19	37.6	3.09	431	6.12	1,930	8.63	149	0.54	258	0.08	17,808	4.61	18,763	4.24	18,464	4.88	—	—
교 우	—	—	11.6	0.95	284	4.03	712	3.18	1,330	4.79	5,798	1.70	5,285	1.37	5,393	1.22	4,104	1.09	—	1.81
목 재	1.7	3.26	224.8	18.45	95	1.35	306	1.37	—	—	1,630	0.48	4,932	1.28	3,871	0.88	4,463	1.18	6,653	2.28
牛 편	—	—	—	—	—	—	—	—	—	—	4,134	1.21	8,775	2.27	7,445	1.68	11,053	2.92	6,385	2.19
파 라	0.1	0.19	28.4	2.33	70	0.99	90	0.40	290	1.04	—	0.02	223	0.06	6,506	1.47	6,187	1.64	8,925	3.06
원 유	—	—	—	—	—	—	—	—	—	—	20,145	5.90	25,007	6.48	26,887	6.08	31,686	8.38	30,768	10.55
연 면	—	—	—	—	—	—	—	—	—	—	28,581	8.37	24,661	6.39	20,220	4.57	15,362	4.06	8,994	3.08
황 생	0.6	1.15	57.6	4.73	138	1.96	384	1.72	211	0.76	—	—	—	—	—	—	—	—	—	—
석 유	—	—	—	—	—	—	—	—	—	—	—	—	—	—	—	—	—	—	—	—
비 료	—	—	—	—	197	2.80	1,889	8.44	637	2.29	48,233	14.13	58,261	15.09	58,935	13.33	45,969	12.16	48,049	16.47
신문용지	2.1	4.03	79.2	6.50	155	2.20	244	1.09	776	2.79	3,514	1.03	3,917	1.01	4,743	1.07	3,994	1.06	1,777	0.61
인쇄용지	0.5	0.96	56.6	4.65	221	3.14	350	1.56	596	2.15	—	—	—	—	—	—	—	—	—	—
인 전	0.6	1.15	133.3	10.94	111	1.58	186	0.83	15	0.05	9,107	2.67	9,287	2.41	4,545	1.03	1,881	0.50	88	0.03
자 사	—	—	—	—	—	—	—	—	—	—	7,306	2.14	8,054	2.09	6,715	1.52	8,488	2.24	9,684	3.32
시 벤	4.9	9.40	92.4	7.58	66	0.94	262	1.17	—	—	—	—	—	—	—	—	—	—	—	—
관 유	0.1	0.19	0.1	0.01	—	—	198	0.89	204	0.73	1,975	0.58	5,442	1.41	5,437	1.23	6,516	1.72	1,055	0.36
철 광	3.7	7.10	17.4	1.43	50	0.71	299	1.34	248	0.89	—	—	—	—	—	—	—	—	—	—
설 유기계	0.5	0.96	15.6	1.28	76	1.08	463	2.07	998	3.59	579	0.17	1,905	0.49	4,423	1.00	5,170	1.37	4,097	1.40
輸入총액	52.1	100	218.3	100	7,044	100	22,370	100	27,785	100	341.45	100	386.063	100	442.174	100	378.165	100	291.709	100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년보, 경제년감

~53년에는 SITC, 0類인 식료품 및 산動物(1950년의 0.8%에서 1953년의 44.0%로 증대, 평균은 23.0%) 5類인 化學品(1950년의 16.7%에서 1953년의 16.4%, 그리고 4개년평균으로는 18.1%) 및 6類인 原料別製品(1950년의 58.7%에서 1953년의 22.8%, 평균 37.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1950~1953년간의 총수입의 78.4%를 차지하였다. 個別的인 品目에 관하여 보면 穀物, 原糖 등의 식료품, 抗生劑를 비롯한 醫藥品, 織物絲 및 織物 등 衣類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生고무, 板유리, 시멘트 등 中間財와 纖維機械와 그 部品을 비롯한 資本財 등의 비중은 별로 크지 못했다.

그러나 1954~55년을 경계로 하여 輸入商品構造에는 커다란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最終消費財輸入에서 原資材 및 資本財輸入으로 성격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7·27休戰 이후 戰爭被害로부터의 復舊를 위하여 Nathan 또는 Taska 使節團 등 일련의 專問家の 分析評價를 기초로⁽¹⁸⁾ 지금까지의 救恤的 援助가 產業復興援助로 다소의 質的 變換을 보인에서 생긴 결과이다. 구체적인 品目에서 그 변화를 보면 編織物의 輸入이 原綿輸入으로 代替되고 有煙炭, 石油類, 肥料 등 中間財의 수입비중이 커졌으며 기계류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4~59년간에 있어 SITC, 7類인 機械類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1%, 최고는 1959년의 14.3%에까지 이르러 1960年代初에 끊지 않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

1950~59년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輸入財貨는 그러나 原棉, 油類 그리고 化學肥料의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에는 原綿輸入이 비교적 작았고 油類輸入에 관한 統計는 韓銀資料에는 없으므로 초기의 比重은 소상하지 않으나 統計가 利用可能한 1955년 이후를 보면 1955년에 있어 총액 81,980천달러로 24.01%였던 것이 1957년에는 105,298천달러로 늘어나고(그 비중은 21.81%로 약간 하락) 1959년에는 절대액은 103,322천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상대적인 크기는 35.42%로 전체의 3분의 1이 훨씬 넘었다. 이밖의 중요한 品目을 보면 1952년과 1956년의 凶作으로 인하여 1952~53년의 곡물수입이 절대액으로는 10,921百萬圓(단밀, 보리, 쌀 3品目的 合計임) 상대적 비중은 평균 38.15%에 달하였었고 1957~58년에는 126,166천달러(그 역시 2년합계임) 상대적 비중은 15.13%(연 평균임)에 달하였었으며 1955년 이후는 有煙炭수입이 연평균 2천만달러臺에 있었으며 50년대 中葉에는 시멘트수입이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輸入代替產業의 건설로 인해 1956년의 5,442천달러(1.41%)에서 59년에는 1,055천달러(0.36%)로 줄어 들었다.

(18) 動亂후의 美經濟使節團의 活動內容에 관한 간략한 叙述로는 拙稿, 「韓國의 經濟發展에 미친 美國經濟使節團의 報告 및 忠告」亞細亞研究, 第10卷 第2號 pp. 213~224 참고.

<第11表>

商品別輸入變動(1・2차 상품別)

단위 : { 1946~54 百萬圓
1955~59 千弗 }

年 度	1 次 商 品			2 次 商 品			未 分 類			計	
	金額	伸張率	比 重	金額	伸張率	比 重	金額	比 重	%	金額	比 重
1946	1.29	—	76.79%	0.39	—	23.21%	—	—	1.68%	1.68	100%
47	8.91	590.70	42.69%	11.96	2,966.67	57.31%	—	—	20.87%	100	100
48	26.54	197.87	30.07%	61.73	416.14	69.93%	—	—	88.27%	100	100
49	27.95	5.31	18.96%	119.44	93.49	81.04%	—	—	147.39%	100	100
50	4.37	△84.36	8.38	47.76	△60.01	91.62%	—	—	52.13%	100	100
51	351.19	7,936.38	28.83	867.10	1,715.54	71.17%	—	—	1,218.29%	100	100
52	3,740.69	965.15	53.10	3,303.52	280.98	46.90%	—	—	7,044.21%	100	100
53	12,306.42	228.99	55.01	10,063.67	204.63	44.99%	—	—	22,370.09%	100	100
54	6,862.00	△44.24	24.70	20,923.00	107.91	75.30%	—	—	27,785.00%	100	100
55	98.427.	1,334.38	28.83	180,630.	763.31	52.91%	62,357	18.26%	341,415.	100	100
56	147,000.	49.35	38.08	198,289.	9.78	51.36%	40,774	10.56%	386,063.	100	100
57	219,062.	49.02	49.54	184,501.	△6.95	41.73%	38,611	8.73%	442,174.	100	100
58	178,426.	△18.55	47.18	174,686.	△5.32	46.19%	25,053	6.62%	378,165.	100	100
59	130,309.	△26.97	44.67	161,401.	△7.61	55.33%	—	—	291,709.	100	100

자료 : 第8表와 同

이것은 新聞用紙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나 完全代替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액은 1955년의 3,514 천달러에서 59년의 1,777 천달러로 半減되었으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시멘트의 경우보다 훨씬 커졌다.

다음 1946~59년간의 수입상품구조를 1,2次產品別로 보면 第11表에서와 같이 第2次產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간별로 보면 1946~54년간의 救恤的 性格의 援助가 주어졌을 때의 第2次產品의 비중이 높고 復興援助로 바뀌어진 1955년이후에 있어서는 第1次產品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끝으로 소비재와 자본재 및 원자재로 나누어 고찰하면 第12表에 있어서와 같이 전쟁적 후에 있어서(1952~53)는 소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후 계속 줄어들다가 1956년의 凶作을 반영하여 1957년에 단한번 예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앞에서도 말한 바 있거니와 자본재수입의 비중은 1947~53년까지는 지극히 작았다가 復興援助가 1954년 이

<第12表> 輸入商品構造

단위 : %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기타
1947	—	—	—	—
48	7.7	2.9	88.0	1.4
49	1.9	1.1	95.8	1.2
50	2.6	2.2	94.1	1.1
51	4.6	10.9	82.9	1.6
52	6.5	2.8	90.5	0.2
53	50.1	2.6	45.8	1.5
54	49.0	3.4	46.5	1.1
55	21.4	13.6	64.5	0.5
56	22.1	8.2	69.2	0.5
57	32.5	11.3	55.4	0.8
58	47.5	9.8	41.8	0.9
59	21.5	9.7	61.9	6.9
평균	11.5	14.3	71.9	2.3
	21.45	7.14	69.87	3.54

자료 : 第9表와 同

후에는 평균 10% 水準으로 提高되었다. 그리고 原資材수입의 비중은 1947~51년까지는 평균 90% 水準에 머물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대체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輸入商品構造는 어떠한 視角에서 분석하더라도 基本的인 物資의 自給이 부족하고(有煙炭, 石油, 原棉, 化學肥料의 경우) 最終消費財를 수입하며(原資材는 우리의 輸出商品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自然原料가 아니라 人造原料 즉 工業製品이다) 資本財輸入의 比重이 지

극히 낮다는 前工業化時代의, 依存的인 性格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國別, 地域別 貿易構造

한국은 經濟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國際經濟活動의 뒤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船舶 등 國際經濟의in 社會間接資本의 마련이 적어 활발한 對外活動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地理的으로 가까운 國家를 重要交易對象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國民總生產의 규모가 작다는 것과 아울러 50년대의 무역을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援助에 의한 輸入중심의 무역을 하는 가운데 자연히 한국무역의 흐름은 政治的 親疎에 의해 규제받게 되었다. 그 결과 50년대의 한국은 政治的으로 친밀하였던 미국을 中요대상으로 하면서 日本과의 政治的 親疎의 消長에 따라 兩國의 相對的 比重이 변화하는 偏重的 貿易을 하여 왔다. 즉 1946년에 있어서는 종래(日帝下) 한국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對日貿易은 급격히 줄어 輸出에 있어⁽¹⁹⁾ 18.60%, 輸入에 있어 4.78%를 점하는데 불과하고 그대신 中國과의 무역이 수출에 있어 81.40%, 수입에 있어 94.53%로 압도적인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에는 對日輸出은 거의 없어지고 수입도 0.49%로 격감되었다. 한편 中國과의 무역도 國共對立의 激化와 國府軍의 戰勢不利로 그 역시 크게 줄어 수출은 22.96%, 수입을 32.23%로 떨어지고 그대신 香港에 대한 수출이 41.88%, 수입이 7.09%로 늘어 났으며 미국과의 무역도 수출에 있어 4.77%, 수입에 있어 12.84%를 차지하게 되었다⁽²⁰⁾.

6.25動亂을 계기로 이러한 國別貿易構造는 다시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전쟁이라 는 특수한 분위기와 船舶 등 수송수단의 不備, 그리고 生產, 특히 工業生產의 격감으로 수출무역은 特產品에 대한 需要構造가 우리와 비슷하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편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對日輸出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1950년의 75.5%에서 1951년의 83.6%로까지 커졌다. 그리고 輸入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따라서 戰時의 緊急物資調達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일본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어 對日輸入의 비중도 역시 1950년의 49.9%에서 1951년의 72.8%로 커졌다.

그러나 戰火가 차츰 가라앉고 戰爭遂行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당시의 한국 정부의 否定的 對日政策은 輸出入의 상대적인 크기에 영향을 주게 치였다. 그리하여 對日輸出은 절대액은 계속 늘어갔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1956년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그 대신 미국의 비중이 커져갔다. 즉 對日輸出의 비중은 1952년의 54.1%에서 1956년의 33.1

(19)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 p. 113.

(20) 朝鮮銀行「朝鮮經濟年報」1948年版, p. 1-130.

%로 계속 하락되고 그대신 對美輸出의 비중은 1950년의 4.9%에서 계속커져 1954년에는 56.3%로 피크에 이르고 1956년에는 다소 줄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44.4%로 일본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7년 이후에는 다시 對日輸出의 비중이 커져 1959년에는 66.1%로 3분의 2 가량을 점하게 되었고 對美輸出은 11.2%로 크게 줄어 들었다. 다만 輸入은 그 대부분의 미국의 無償援助에 의존하였고 또 國際收支의 악화 등으로 Buy-American 政策이 강화됨에 따라 1955년 이후로 對美輸入은 언제나 對日輸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수출입무역은 政治的으로 가까운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日本에 크게 의존하여 왔는데 이밖의 중요한 交易對象國으로는 수출에 있어 홍콩, 영국, 프랑스, 西獨 등이 있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홍콩, 영국, 이태리, 西獨 등이 있었다. 그러나 통털어 19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交易對象國은 아시아洲에 10개국, 유럽洲에 9개국, 南北美洲에 3개국, 아프리카 및 大洋洲에 각기 1개국 도합 24개국정도에 불과하였다⁽²¹⁾. 그런

<第13表> 偏重된 輸出市場構造(1950~59)(괄호안은 %)

단위 : { 1950~54 百萬圓
1955~59 千弗 }

1950	325.7	日	245.9 (75.5)	홍콩	61.8 (18.9)	美	15.9 (4.8)	合計
1951	459.1	日	383.6 (83.5)	美	38.2 (8.3)	홍콩	36.6 (7.9)	99.7%
1952	1,950	日	1,054 (54.0)	美	646 (33.1)	"	235 (12.0)	99.1%
1953	3,987	美	1,906 (47.8)	日	1,497 (37.5)	"	487 (12.2)	97.5%
1954	6,675	美	3,757 (56.3)	日	2,199 (32.9)	"	607 (9.9)	99.1%
1955	17,966	美	7,361 (40.9)	日	7,253 (40.4)	"	1,852 (10.3)	91.6%
1956	24,595	美	10,912 (44.4)	日	8,146 (33.1)	"	1,934 (7.8)	85.3%
1957	22,202	日	10,820 (48.7)	"	4,094 (18.4)	"	3,822 (17.2)	84.3%
1958	16,451	"	9,778 (59.4)	"	2,859 (17.4)	"	1,274 (7.7)	84.5%
1959	19,162	"	12,671 (66.1)	"	2,150 (11.2)	"	1,023 (5.3)	82.6%

자료 : 한은, 경제연감 1957年版 및 經濟統計年報 1960年版서 作成

(21) 商工部資料로는 南北美洲가 1個國으로 총 22개國임. 高大貿易研究所, 「經濟發展과 貿易·國際收支」 세미나에서의 論文『한국의 수출진흥정책』 p.3.

<第14表>

偏重된 输入市場構造

단위 : { 1950~54 百萬圓
1955~59 千弗 }

年度	수입총액	中國	日本	HK	싱가폴	泰國	美國	英國	獨逸	伊太利
1950	52.1 (100)	4.6 (8.8)	36.0 (72.9)	1.8 (3.5)	—	—	5.5 (10.6)	2.2 (4.2)	—	—
	上位三國 合計 46.1(88.5%)									
1951	1,218.3 (100)	15.0 (1.2)	886.4 (72.8)	217.7 (17.9)	32.7 (2.7)	—	46.1 (3.8)	0.2 (0.3)	—	—
	上位三國 合計 1,150.2(94.4%)									
1952	7,044 (100)	829 (11.8)	4,169 (59.2)	549 (7.8)	—	577 (8.2)	196 (2.8)	23 (0.3)	—	—
	上位三國 合計 5,575(79.1%)									
1953	22,370 (100)	1,094 (4.9)	10,666 (47.7)	696 (3.1)	—	2,383 (10.7)	3,703 (16.6)	109 (0.5)	—	—
	上位三國 合計 16,752(74.9%)									
1954	27,785 (100)	1,273 (4.6)	10,612 (38.2)	3,110 (11.2)	—	—	6,126 (22.1)	851 (3.1)	575 (21)	982 (3.5)
	上位三國 合計 19,848(71.4%)									
1955	341,415 (100)	4,289 (1.3)	19,066 (5.6)	14,358 (4.2)	—	—	77,878 (22.8)	5,713 (1.7)	10,634 (3.1)	7,895 (2.3)
	上位三國 合計 30,906(64.0%)									
1956	386,063 (100)	5,462 (1.4)	20,720 (5.4)	9,160 (2.4)	—	—	86,753 (22.5)	5,659 (1.5)	11,885 (3.1)	9,951 (2.6)
	上位三國 合計 21,858(61.7%)									
1957	442,174 (100)	8,806 (2.0)	33,538 (7.6)	4,063 (0.9)	—	—	109,586 (24.8)	8,007 (1.8)	13,557 (3.1)	7,232 (1.6)
	上位三國 合計 156,681(35.4%)									
1958	378,165 (100)	10,738 (2.8)	49,864 (13.2)	3,013 (0.8)	—	—	208,970 (55.3)	7,817 (2.1)	21,637 (5.7)	15,846 (4.2)
	上位三國 合計 280,471(74.2%)									
1959	282,743 (100)	5,849 (2.1)	32,003 (11.3)	655 —	—	—	141,964 (50.2)	7,924 —	32,753 (11.6)	11,251 (4.0)
	上位三國 合計 215,771(73.9%)									

자료 : 第13表와 同

예 이처럼 제한된 交易對象國 중에서도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輸出에 있어서는 1950~55년간에는 90%를 넘었고 1956~59년간에는 80%를 넘어 평균 92.79%에 이르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최고 1951년의 94.4%에서 최하(1957년의 35.4%를 예외로 할 때) 1956년의 61.7%로서 평균 71.75%에 달하고 있다.

끝으로 先後進國別로 무역구조를 살펴 보면 第1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入 모두가 先進國市場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輸出商品이 自然資源 또는 勞動集約의 인特產品이라는 特性과 또 日本, 美國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1950년 때에 있어 資本財 및 原資材 특히 人造原料의 國內生產이 불가능하다는 產業構造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輸入의 경우 1955~57년에 있어 先進國이 차지하는

<第15表>

先後進國別市場構造

단위 : %

	輸出		輸入	
	先進國	開發道上國	先進國	開發途上國
1950	80.9	19.1	66.1	33.9
1951	92.0	8.0	77.4	22.6
1952	87.3	12.7	71.5	28.5
1953	87.0	13.0	77.6	22.4
1954	90.4	9.6	81.4	18.6
1955	89.0	11.0	40.3	6.9
1956	91.0	9.0	40.7	6.6
1957	80.6	19.4	42.9	7.4
1958	90.3	9.7	92.3	7.7
1959	89.1	10.9	79.6	20.4

자료 : 第13表와 同

share 가 激減한 것은 當該年の 開發途上國의 share 를 뺀 나머지 부분이 國家別未詳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4. 援助輸入의 分析

1945년 이후의 한국무역을 말하면서 援助輸入을 빠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원조수입에 대한 상세한 分析을 할 수는 없어 앞서 量的 分析을 한데 이어 質的 内容에 대한 간단한 言及을 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그런데 미국 원조를 論할 때 우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特異性에서 나오는 미국의 世界政策을 言及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원조는 附帶條件이 明示的으로 있건 없건 결국에는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미국 자본주의의 生存과 成就를 위한 움직임의 한 延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자본주의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첫째 過剩貯蓄을 위한 投資機會와 過剩商品을 위한 販賣市場을 마련한다는 것, 둘째 稀少하거나 不足한 自然資源의 供給市場을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세째 미국 자본주의에 加해지는 暴力を 沮止한다는 것의 세 가지를 우선 들 수 있다⁽²²⁾.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는 第1과 第3의 目的이 혼합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원조의 내용은 주로 미국에서 處分될 수 있었던 過剩生產物為主인 消費財 중심이었으며 또 그 販賣代錢의 대부분이 軍事支援을 위하여 轉用되었다. 즉 第1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원조는 대부분이 過剩生產된 消費財로 이루어졌으니 그때 그

(22) 拙稿, American Aid and Korean Economy, *Koreana Quarterly*, Vol. 8, No. 3, 1966, pp. 76-82.

<第16表> 外 國 援 助 의 物 資 內 費

	施 設 財	%	消 費 財	%
GARIOA	31	7	379	93
E C A	6	3	170	97
S E C	0.2	0	26	100
C R I K	—	0	457	100
UNKRA	86	70	36	30
ICA	395	28	1,025	72
PL 480	—	0	138	100
計	518	18.8	2,231	81.2

자료 : 洪性國 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 1964, p. 279 의 表를 修正

때의 援助의 特殊性을 잠시 무시할 때 GARIOA 원조는 93%가 ECA 원조는 97%가, SEC 와 CRIK 원조는 100%가 PL 480號에 의한 원조 역시 100%가 그리고 ICA 원조는 72.2% 가 非計劃事業援助 즉 소비재 원조이었고 한편 UNKRA 원조는 70%가 施設財원조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원조의 81.2%가 消費財이었다.

그런데 이들 消費財원조 중 第2次產品은 당시의 한국경제와 相剋的인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輸入商品構造에서도 보았듯 第2次產品의 원조는 원조에 의한 한국의 工業建設과 발맞추어 最終消費財에서 原資材로 변화하였고 설혹 계속 최종소비재 형태로 들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한국공업의 공급능력이 自給自足을 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으므로 國內產業에 파괴적인 競爭的 打擊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PL 480號에 의한 剩餘農產物원조는 原糖, 牛脂, 樹脂 등 小數品目을 제외하고서는 國內農業과 경쟁하여 大打擊을 주었다. 그 중에서는 가장 현저한 것이 보리 및 밀導入으로 인한 國內穀物生產業의 生產力파괴와 原棉導入으로 인한 編花栽培의 荒廢化이었다.

剩餘農產物 원조가 한국농업에 미친 效果에 대한 計量的인 분석은 현재로서는 없으며剩農物援助의 功過에 대한 判斷도 한결 같지가 않다. 그러나 經濟理論의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면 잉여농산물원조는 供給의 증가를 의미하며 공급증가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價格을 하락시키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價格下落은 농업에 있어서의 生產性上昇으로 인한 利益을 低價格이란 형태로 농업생산자에게가 아니라 농산물소비자에게 移轉, 配分하여 주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공급부족이 高價格을 실현하여 생산자에게 高利潤이라는 형태로 生產성上승의 이익을 歸屬시켜 주었을 경우에 비하여 보다 작은 貨幣的誘因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生產에의 誘因缺如가 결국에는 自給率의 下落을 가져온 것은

<第17表>

PL 480 號에 의한 刺鈎農產物援助內譯(1956—59)

(단위 : 千弗)

		1956	1957	1958	1959	合 計
小麥	麥	7,504	1,520	29,941	3,623	42,588
大麥	麥	12,419	4,608	14,104	140	31,271
쌀		—	26,840	—	—	26,840
수우	수 우	—	—	2,226	6	2,232
豚肉	肉 통 조	—	—	672	575	1,247
葉煙	煙 草	4,848	2,126	—	—	6,974
原棉	棉	8,183	1,807	448	6,986	17,424
기합	計	32,955	45,522	47,896	11,436	137,809

자료 : 한은 경제통계연보 1960年版

<第18表>

綿花減產趨勢

	면적	指數	수확량	指數
1945	町步 174,209.2	100.0	65,526	100.0
46	127,504.0	73.2	57,540	87.8
47	129,847.8	74.5	33,314	50.8
48	115,257.0	66.2	52,536	80.2
49	135,299.1	77.7	83,453	127.4
50	137,832.6	79.1	61,511	93.9
51	146,293.5	84.0	75,233	114.8
52	115,943.3	66.6	48,206	73.6
53	124,436.6	71.4	47,486	72.5
54	120,806.5	69.3	47,209	72.0
55	112,779.9	64.7	58,635	89.5
56	116,121.8	66.7	48,969	74.7
57	77,568.8	44.5	25,741	39.3
58	56,547.4	32.5	22,528	34.4
59	60,844.2	34.9	24,553	37.5

자료 : 農協中央會, 韓國農政 20 年史

물론이다. 그러므로 잉여농산물의 원조는 일반국민의 營養供給을 증대시켜 勞動生產性一般의 상승을 통하여 經濟發展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1952년 및 1956년의 凸作 후에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을 것은 틀림없으나 生產과 自給에는 汽止的 效果를 미쳤을 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綿花의 경우에 푸렷이 나타난다. 물론 纖維의 長短에 따르는 技術的 障路가 푸시할 수는 없겠지만 PL 480 號에 의한 原棉援助가 本格化하기 시작한 1957년에

후에는 編花耕作地와 陸地棉수확량은 1945년의 3분의 1內外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적지 않은 副作用도 있었고 가령 穀物輸入과 化學肥料輸入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穀物輸入으로 인한 低穀價가 生產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량의 化學肥料를 수입하여 農業生產性을 한편으로는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業經營收支를 맞추어 주려는 惡循環도 있기는 하였지만 油類, 化學肥料, 시멘트, 木材, 機械類 鐵鋼板, 人造纖維業 등 核心的인 投資財 및 原資材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원조의 功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功過를 한몸에 가진 원조는 1958년의 미국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를 계기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며 1957년의 382,892(輸入基準으로는 374,026) 천달러에서 1958년의 321,272(수입기준으로는 310,975) 천달러로 16.1%가 감소되었고 다시 1959년에는 222,204(수입기준으로는 210,743) 천달러로 前年에 비하여 30.8% 1957년에 비하면 42.0%가 줄어들었다(수입을 기준하면 58년은 16.9% 감소, 59년은 22.2% 감소로 57~59년 중에 43.9%나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援助減少가 빚은 구김살은 심각한 經濟的 停滯를 결과했고 그것은 李承晚政權에 대한 美國의 支持拋棄와 때를 같이하여 4·19革命으로 이르는 遠因을 마련한 것이었다.

IV. 結 言

경제 발전은 외국무역에 의하여 오로지 촉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²³⁾. 실제로 있어서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近世 이후의 유럽 여러 나라의 경험은 무역이 경제발전의 推進體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역은 「리카도」의 古典的인 설명과 그 이후의 精密한 檢證에서 보듯 貿易利益이라는 가외의 이익을 발생시켜 韓國과 또 世界全體의所得을 증가시키며 또 「스미스」의 論證에서 보듯, 보다 큰 市場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산증대를 뒷받침해 준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원활한 경제활동을自己完了의로 할 수 있기에 충분한 自然資源뿐만 아니라 人的 資源까지도 포함한 資源을 賦與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헥서」의 古典的인 定理에서 含蓄하듯 有無를 相通개 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촉진시킨다. 이러한 貿易의 有無相通作用은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死活的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경제의 순환 및 확대를 위하여 必須不可缺한 戰略物資가 무역을 통하여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資本財, 原資材 그

(23) Celso Furtado,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1964, p. 4.

리고 技術은 오직 무역, 즉 수입을 통하여 마련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戰略的 要因의 상당한 정도까지의 自給이 이루어지는 데는 최소 한도 40년 내지 6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²⁴⁾. 따라서 이들을 持續的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對外支拂手段을 持續的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출은 對外支拂手段을 마련하는 唯一無二한 수단으로서決定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경제는 1946~1959년의 세월을 통하여 수출을 持續的으로 증가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무상의 외국원조를 통하여 經濟發展의 戰略物資인 資本財와 原資材, 그리고 技術 까지도 대부분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경제의 순환과 발전을 支撐할 重壓이 수출에 負荷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둘째 對外支拂手段의 마련을 國內에 충분한 규모로의 金生產이 없는 한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輸出이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려면 國內의 工業化가 先行되어야 하는데 1946~59년의 援助依存의 韓國經濟에서는 恒久的인 輸出增進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工業화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援助를 기초로 한 工業화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受援當事國의 能力不足과 誠意不足도 한 원인이 되지만 그 보다는 원조가 海外投資 이상으로 受援國의 產業과 경쟁적인 產業育成을 꺼리고 따라서 本格的인 工業화를 꺼린다는 것과 특히 한국에서의 원조는 自由世界에 대한 共產侵略을 阻止하기 위한 軍事費調達을 목표로 한다는 명백하고도 확고한 目的이라는 制約에 얹매어 매년 소비되는 軍事費를 조달하기 위해 一回限의 소비로 없어질 수 있는 單用財 single-use goods만이 공여되었다는데 주로 起因한다.

결국 이러한 制約 때문에 해방후의 수출무역은 해마다 고루지 못한 增減을 경험하던 끝에 1959년에는 第1表에서도 보듯 1947년만도 못한 수출을 하는데 그치고 援助에 의한 輸入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支柱로서 始終 機能하게 되었다. 그런데 外部的으로는 이 援助의 供與가 軍事 및 政治的인 목적에 의하여 經濟外의으로 결정되고 内部的으로 그 使用도 또한 經濟外의 動機와 方法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운데 그 經濟的 效率은 크게 低下되었다. 한국에서의 美國援助의 非效率的 使用이 마샬計劃에 의한 유럽에서의 그 效率的 使用과 對照되어 國內外 특히 援助國인 미국에서 발생이 커던 것은 한국의 行政的 能力不足도 있지만 經濟援助가 經濟的 「메카니즘」이 아니라 政治的 「메카니즘」에 의하여 運營되어 왔다는 基本的 制約에 오히려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援助依存의 韓國經濟는 1958년 이후의 援助의 격감으로 그 支撐한 힘을 잃고 政治的으로

(24)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李相球, 姜命圭共譯 p.29 및 卷末의 圖表 參照.

는 4·19 革命을 맞고 經濟的으로는 60 年代에 있어서의 輸出을 통한 成長이라는 不可避한
길을 苦難에 찬 가운데 걸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